

SKT '인바이츠 헬스케어' 설립, 기업가치 1000억대

# ICT역량, 헬스케어에 결합… 의료 스마트 솔루션 개발

자사 내 사업부 분사, 합작사 출범  
국내 유망 중소와 글로벌 진출 추진  
김준연 대표 “의료기관 혁신 이끌것”

SK텔레콤이 자사 정보통신기술(CT) 역량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다. 헬스케어사업부를 분사해 뉴레이크얼라이언스와 합작사를 출범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뉴레이크얼라이언스와 함께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서 자사 내 관련 사업부를 분사, 헬스케어 사업에 경험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설립했다.

'인바이츠 헬스케어'에는 국내 헬스케어 업계에 다수 투자 경험을 보유한 사모펀드 운용사 '뉴레이크얼라이언스'가 대주주로 참여했다. 하나로의료



'인바이츠 헬스케어' 김준연 대표.

/SK텔레콤

재단, 서울의과대학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SCL헬스케어그룹도 함께 할 예정이다.

예정된 기타 주주사의 참여가 완료되면 인바이츠 헬스케어의 기업가치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 중 43.4%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대표로 SK텔레콤에서 헬스케어유닛장을 역임했던 김준연씨를 선임했다.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고객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세상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ICT 기술을 통해 개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 기

관의 혁신을 돋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ICT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구축에 나선다. SK텔레콤이 개발한 당뇨병 관리 플랫폼 '코치코치당뇨'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 심혈관, 호흡기, 뇌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각종 만성질환의 관리를 돋는 개인용 종합 건강 관리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시된 '코치코치당뇨'는 당뇨환자가 자신의 혈당, 식단, 운동계획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돋고,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병원 등 각종 의료 기관의 운영혁신을 돋는 스마트 솔루션 출시도 준비중이다. 아울러 다양한 의료 용품의 구매, 관리를 돋는 스마트 MRO 사업을 통해 의료 기관의 운영 업무 부담을 절감,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 기관 전용 클라우드 솔루션도 개발,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SK텔레콤의 양자암호통신,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약 1억7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의료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올 3·4분기 중 현지에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의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파트너십을 이어받아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연 인바이츠 헬스케어 대표는 "SK텔레콤의 첨단 ICT 역량을 의료 영역에 접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건강 증진과 함께 의료 기관의 혁신을 이끌어 내며 헬스케어 업계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metroseoul.co.kr

## 코로나에도 꿋꿋한 반도체… “韓, 美 넘어설 것” KT “알뜰폰 고객에 月 100GB 제공”

펜데믹 현상으로 기업 서버확충 ↑  
D램·SSD 등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19에도 꿋꿋이 성장하고 있다.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늘었다면서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서버용 D램은 종전에는 1분기에 전년비 15%에서 20%로, 기업용 SSD는 5~10%에서 10~15%로 크게 올렸다.

가격 상승 이유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이 '합동 방어인프라 사업'으로 반도체를 대규모 발주한 데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펜데믹 현상으로 인해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확충에 나선 때문이다. 재택근무와 자택 대기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업계 재고도 줄어들면서 2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IT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서버 발주를 늘리고 있다. 알리바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

/삼성전자

바와 텐센트, SNS인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 댄스 등이 주 수요업체로 지목됐다. 낸드플래시도 장기계약에 더해 추가 물량 주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역시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침체기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조 시설을 고도로 자동화한 덕분에 생산량 차질도 겪지 않고 있다며, 북미와 중국에서 게임과 온라인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덕분에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비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도 나왔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공급량 상당수를 대체하면서 반도체 점유율을 2018년 기준 24%에서 31%까지 높이고 전체 1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비전 2030'을 발표하고 비메모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김재웅 기자 juk@

세 가지 후불 요금제 대상 혜택

KT는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들에게 매월 최대 100기가바이트(GB)의 추가 데이터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요금제는 월 제공 데이터 양에 민감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 가지 후불 요금제다. 프로모션 혜택은 해당 요금제를 서비스하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도 무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기본 데이터 10GB와 소진 시 일 2GB(이후 3Mbps 속도 무제한)를 제공하는 'LTE 데이터선택 65.8' 기반 요금제는 매월 기본 데이터 100GB를

추가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 15GB(소진 시 3Mbps 속도 무제한)를 제공하는 '순 광대역 안심무한 51' 기반 요금제는 매월 50GB의 기본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또 기본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LTE 선택형 100분 10GB' 기반 요금제는 월 1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편, KT는 지난 2월 5G망 도매대가를 66%로 인하했고, 'LTE 데이터ON' 요금제 도매가도 업계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지원금 선지급', '마케팅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 LGU+, 알뜰폰 사업자에 온라인 판촉물 지원

무선 충전기 등 선호도 높은 제품 제공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3월 온라인 판촉물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알뜰폰은 스마트, 아이즈비전, 여유텔레콤과 같은 중소 업체를 비롯해 에네스텔레콤, 에스원, 인스코비 등 유플러스 알뜰폰(MVNO) 파트너스 11개사로, 자회사는 제외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주 각 사업자 별로 필요 물품을 취합 받았으며 미니 공기 청정기, 무선 충전기, 보조 배터리, 커피 쿠폰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과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 세정제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모델이 알뜰폰 온라인 판촉물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 포스코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코로나 감안 3주간 진행

포스코건설·케미칼 등 4개사 모집

포스코그룹이 11일부터 2020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 모집하는 그룹사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4개사다.

입사지원서는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서류 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주일 연장해 3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포스코는 이번부터 더 많은 인재들에 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점 하한선을 4.5점 기준 3.0점에서 2.8점으로 낮춰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실제 경험 위주로 서류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 최소 학점 등 지원요건은 그룹 사마다 상이해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어지는 인적 성검사와 면접 일정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원받은 판촉물을 활용해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사업영역에서 온라인 판촉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알뜰폰 판매 실적 및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판촉물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